

‘KTX 효과’ 굉장하네

개통 3년만에 항공승객 32% 빼앗아
호남선 승객 2배 폭증...年 300만명 ↑

호남고속철 수요 입증...조기 착공 서둘러야

KTX 개통 이후 광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지난 2001년 총 223만642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들어 2006년에는 139만816명으로 5년 만에 37%나 줄었다. 특히 KTX가 개통된 2004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감소폭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3년 광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203만9천796명이었으나 KTX가 개통(2004년 4월)된 2004년에는 178만67명으로 전년에 비해 12% 25만9천729명이 감소했다. 2005년에도 KTX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152만2천30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14%인 25만8천37명이 줄었다. 이용객의 감소세는 지속돼 2006년에는 한해동안 13만1천214명이 감소했다.

반면 호남선 철도 이용객은 KTX 개통 이전 하루 평균 1만1천명 수준이었으나 2004년 4월 KTX 개통 이후 2004년에는 1만8천명, 2005·2006년에는 1만9천~2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KTX 개통 이후 호남선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연간 300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호남선 철도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당초 고속철도 수요 부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의 조기 착공에 반대했던 정부 일각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고속철 조기착공과 완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KTX 개통이 광주공항 국내선 항공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KTX의 이용 증가는 기존 열차에 비해 탑승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



된 데다 요금이 비행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KTX가 개통된 뒤, 국내선 광주~서울간 항공편은 2004년 10편에서 8편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6편으로 또 다시 감축됐다.

이와 함께 광주공항 광주~제주간 국내선 탑승률도 지난 2000년에 비해 30% 가량 줄었다. 광주~제주간 단체 여행 감소로 인해 제주행 항공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동남아 등 단기 해외 관광에 비해 가격 면에서 우위를 상실한 것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선 항공수요 감소와 달리 광주공항을 통한 국제선은 승객이 급증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룬다. 광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001년 4천213명에서 2002년 4만6천178명, 2004년 9만9천901명, 2006년 11만4천729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고속버스 이용률은 KTX 개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서울간 고속버스 이용객은 2003년에 총 125만9천명이었으며, KTX가 개통한 2004년에는 125만8천명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또 2005년에는 124만명이, 2006년에는 126만명이 이용해 고속버스는 KTX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눈 덮인 '개골산' 민족의 영산 금강산을 찾은 남쪽 관광객들이 지난 20일 만물상을 조망하는 천선대에 오르기 위해 철제 계단을 아슬아슬하게 오르고 있다.

/금강산=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세하 택지개발 백지화 與 '탈당독' 터졌다

임종인 첫 스타트...염동연도 2~3일내 결행

광주시, 지정 철회... '도면 유출' 파문 확산

광주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22일 "개발계획 도면 유출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열풍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세하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을 개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

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관련기사 7면〉

광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개발 예정지구 고시 전부터 개발 도면 등 개발 정보가 유출되면서 투기열풍이 불어닥친 것은 물론, 도면 유출 경위 수사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간부 공무원이 줄소환 될 조짐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 세하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해 공고한 건축허가

제청과 현재 진행중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절차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애초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기로 했으며, 도면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택지개발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고, 도면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되자 시민들의 의혹 해소와 함께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판단 아래 사업 철회를 단행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22일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 대량 탈당의 물꼬가 터지면서 여당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임종인 의원은 이날 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없는 '잡탕 정당'으로는 희망이 없으며 노선별로 갈라져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들 가운데 10여명과 사전에 얘기한 것이 있다"고 주장, 연쇄 탈당을 시사했다.

임종인 의원의 탈당에 이어 이날 오후 중국에서 귀국한 염동연 의원도 2~3일내에 탈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29일 중앙위원회에 앞서 대량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1일 탈당을 시사한 정동영 전 의장에 이어, 김근태 의장 그룹인 민평련 소속 의원들도 탈당 결행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날 민평련 소속 유선호, 문학진 의원 등은 "민평련에서도 탈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동영 계보인 김나순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내에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전해졌고, 천재배 의원도 이계안, 최재천, 제종길, 정성호, 안민석, 김재운 의원 등과 만나 탈당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중도적 입장을 나타냈던 재선 그룹들도 이번주에 회동을 갖고 탈당 결행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수파를 이끌고 있는 김두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9일 중앙위원회 소집과 관련, "볼리력까지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것이 당원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결사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분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FTA문건' 국회서 1부 증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략을 담은 문건이 외부로 유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건 1부가 지난 13일 국회 한미FTA 특위 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뒤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5면〉

정부 관계자는 "당시 비공개 회의 때 배포된 문건중 모 국회의원에 배포한 문건이 회수되지 않아 특위 종료직후 확인 작업에 나섰으나 회수

하지 못했다"고 22일 말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만큼 문건을 빼돌렸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다른 비공개 회의 참석자가 해당 의원 자리에 놓여있던 문건을 빼돌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FTA 관련 부처에 대해 감도 높은 보안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11가지 생약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김동원